

고독한 공간, 제주에 대한 제 인식

김새미오*

<차 례>

1. 들어가며
2. 제주도 인식의 제 양상
3. 나오며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시대 절대 고독의 공간이었던 제주도에 대해, 유배인·관리·제주문인의 범주로 나누어 감정의 층위를 살펴보았다. 먼저 유배인들에게 제주도는 불안과 상실감을 주는 공간이었다. 유배 자체가 형벌이었기에 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감과 사면에 대한 일말의 희망으로 버텼었다. 게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소멸되는 공간이기에, 그 고독감은 상실감으로 이어졌다. 관리들에게 제주도는 조선에서 홀로 유교문명을 모르는 곳이었다. 또한 자신이 지내왔던 익숙한 공간과의 결별을 통해 고독감을 주는 곳이었다. 하지만 관리들은 공적인 힘이 있었기에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제주도를 변화시키고, 점진적으로 제주를 유교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제주 문인들에게 제주도는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었고, 떠났어도 다시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애증의 공간이었다. 매계 이한우의 경우 대과에 낙방하고 돌아와서 영주심경시 등을 지었는데, 이는 자신의 외로움과 상실감을 제주자연을 통해 표현하면서 승화시킨 것이었다. 부해 안병택의 경우 출륙금지령이 풀려 본토로 공부를 하러 갔지만, 끊임없이 제주를 그리워하고 또 왕래하였다. 수은 김희돈의 경우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한계로 인해 다시 제주도에 은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자신이 선택한 은거가 아니라는 점에서 또 다른 양상의 고독이라고 할 수 있다.

유배인과 관리들에게 모두 제주도는 처음 경험하는 공간이었기에 이 자체만으로도 고독한 곳이었다. 또한 제주문화가 본토와는 많이 달랐기에 차별적 시각을 가지고 제주도의 문물을 대하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감정적·상황적 단절이지만, 결국 자신

*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전자우편 : kimsaemio@hanmail.net

이 익숙했던 공간을 그리워하는 또 다른 고독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제주 문인인 경우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자연과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제주도는 자신들을 얽매는 공간이었기에 그 틀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가득하였다. 이는 공간적인 단절에서 오는 고독감이었다. 이런 경향은 조선말 제제가 풀려 제주도 문인들이 본토를 오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고독감이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제주, 유배, 고독, 제주도 관리, 제주문인

1. 들어가며

조선시대 제주도는 그야말로 절대 고독의 땅이었다. 죽을 형벌에서 한 등급을 감해 살려준 죄인들을 가두었던 곳, 관리들조차 죽음을 각오했던 곳, 왜구들의 침입에 맞서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본토 출입을 제한하던 그런 곳이었다. 어떤 경우이든 외로움이란 늘 존재한다. 하지만 제주도와 같이 공간 자체가 고독감을 주는 곳은 그 느낌이 분명 남달랐을 것이다.

본고는 조선시대 절대고독의 공간이었던 제주도에서 시작한다. 제주에 관련된 한문학 자료를 통해, 고독의 섬이었던 제주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했고, 또 어떻게 고독의 공간을 수용했는가를 살펴보고자한다. 본고에서는 이를 위해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유배인의 시각에서 본 제주, 둘째 관리들의 눈으로 본 제주, 셋째 본토박이 제주 사람이 본 제주이다.

지금까지 제주문학을 접근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유배문학에 집중하였다. 이에 따라 많은 성과가 구현되었고, 관광산업과 연계되어 문화콘텐츠가 개발되기도 하였다. 제주도가 당시 유배지였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유배문학에 집중된 연구는 제주도를 유배지라는 하나의 틀로 고정시키는 시각적 한계를 지닌다. 이는 결국 입체적으로 접근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필자는 본고를 통해 유배인 뿐만 아니라 관리, 지역문인들이 고독의 땅이었던 제주를 어떻게 느끼고 이해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 공간에 대한 연구로는 손기범의 연구¹⁾가 있다. 손기범은 매계 이한우, 추사 김정희, 응와 이원조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는 매계 이한우에 대해서는 수신과 자연미 발견의 공간으로, 추사 김정희에 대해서는 그리움과 爲己之學의 공간으로, 응와 이원조에 대해서는 겸선천하의 실천공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의 연구는 19세기 제주라는 공간에 대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유의미한 작업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인물군의 선정 기준이 아쉽고, 이에 따라 인물군의 본격적인 성향에 대해서는 규명하지 못한 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작가의 폭과 시기를 넓히고 고독한 공간이라는 점에 기준점을 두고 논지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유배인인 경우 北軒 金春澤, 西齋 任徵河를 선택하였다. 복헌과 서재는 서로 인척간으로 제주에 왔던 인물 중에서도 제주에 대한 이해가 깊었던 유배인이기 때문이다. 관리들의 경우로는 淸陰 金尙憲, 瓶窩 李衡祥, 恩波 沈樂洙, 南峰 金繼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인식의 층위를 확인하도록 하겠다. 이형상과 심낙수는 각각 제주목사를 지냈고, 김치는 제주관관을 지냈다. 청음은 제주안무사로 잠시 내도한 바가 있다. 제주도 출신의 문학가로는 一齋 邊景鵬, 梅溪 李漢雨, 浮海 安秉宅, 水隱 金熙敦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들은 제주에 전해지는 얼마 안 되는 한문학 작가들이며, 학계에는 아직은 생소할 수 밖에 없는 인물이다. 하지만 모두 자신만의 시각을 가지고 제주도를 바라보았던 제주의 지성인이었다. 여러 문인들의 시각을 동시에 비교한다면 피상적으로 외로운 공간이었던 제주도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제반 과정을 통해 고독의 공간인 제주에 대해 느꼈던 여러 감정의 층위를 살펴보고, 그들의 감정이 외로운 공간과 어떻게 맞물려 승화되어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고독했지만 유기적으로 움직였던 공간으로서의 제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1) 손기범(2009), 99면.

2. 제주도 인식의 제 양상

1) 유배인, 불안과 상실의 변주

유배인들에게 제주도는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었다. 실제로 참형에서 감형의 조치를 받고 제주로 온 유배인이 많았다. 이들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과 해배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으로 나날을 보냈다. 이들에게 제주에서 보고 느낀 이질적인 풍경, 풍속 등은 그저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다. 제주도는 익숙했던 자신의 공간과의 결별을 의미했고, 그 자체가 불안을 가중시키는 소재였다.

다음 시는 西齋 任徵夏(1687~1730)가 지은 『濟州雜詩』의 일부이다.

海上天常暗	바닷가 하늘은 항상 자욱하고
山南地益低	산 남쪽이라 땅은 더욱 낮구나
宿春蠶化蠹	봄이 되어 좀 벌레 깨어나고
新汲半成泥	새로이 물 길어도 절반은 흙탕물
飢鼠走床下	배고픈 쥐들 책상 밑을 돌아다니고
怪鳥啼屋西	괴상한 까마귀 지붕 서쪽에서 우는데
風濤來擊石	파도는 밀려와 바위에 부딪치어
客枕驚鼙鼓	나그네 잠자리를 북소리로 깨우네. ²⁾

서재는 1726년(영조2)에 소론을 척결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평안도 순안으로 유배를 갔었다. 다음 해인 1727년 제주도 대정현 감산리로 다시 이배조치 되었다. 서재는 제주로 유배가는 여정은 물론 제주에서의 삶을 시와 일기로 표현하였다. 서재의 『濟州雜詩』은 김춘택의 『濟州雜詩』를 본받아 지은 작품으로, 주로 제주의

2) 任徵夏, 『西齋集』 권2, 『濟州雜詩』, 17면.

자연과 풍속을 노래하였다. 총20편인데, 인용한 작품은 이 중 11번째 시이다.

이 시에서 서재가 느끼는 제주자연은 결코 편안하지 않다. 서재는 하늘에 가득한 해무, 낮게 느껴지는 지형을 통해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와 자신을 압박해 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표현하였다. 함련과 경련에서 서재는 제주도의 낯설은 상황을 서술하였다. 좀벌레, 절반이 흙탕물인 식수, 배고픈 쥐, 괴상한 까마귀 등은 모두 본토에서의 생활과는 다른 환경을 표현하였다. 이런 소재는 모두 유배를 온 서재의 긴장감을 돋우는 요인이 된다. 마지막 연에서 서재는 편안히 잠잘 수 있는 시간에도 파도소리에 잠이 깬다는 것으로 그 불안감을 극대화하였다. 파도소리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장가이다. 하지만 같은 파도소리이지만 서재에게는 전쟁의 북소리, 불안에 쿵쥔거리는 심장소리였다. 삶의 한계선이었던 유배지에서 서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감을 안고 견디고 있는 것이다.

유배인에게 고독을 느끼게 하는 것은 자연환경 뿐만은 아니었다. 문화적 환경 또한 그러했다. 다음은 北軒 金春澤(1670~1717)의 시이다.

纔寬金木此幽囚	겨우 형벌에서 풀려 이곳에 갇히니
頗喜輿圖有濟州	지도에 있는 제주 땅이라 자못 기뻐다오
須識二儀同鳥卵	하늘과 땅이 새알과 같다는 것 알겠고
莫疑孤島在龍頭	틀림없는 자라 머리 위 외로운 섬이구나
湖關北隔三韓土	북쪽으로 호남의 삼한 땅이 있고
閩浙西通萬里舟	서쪽으로 민절과 만 리 뱃길로 통하였지
但得朝廷文物盛	조정의 문물 크게 받고도
不妨遐俗自氍毹	거리낌 없이 털가죽 옷 입는 먼 옛날 풍속 ³⁾

북헌은 아버지 晩求窩 金鑰龜(1651~1704)의 제주 유배 시절,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제주도에 온 적이 있었다. 이후 북헌은 1701년 소론의 탄핵으로 扶安에 유

3) 金春澤, 『北軒集』 권2, 『四海錄』, 『詠濟州』, 65면.

배된 바 있고, 장희빈 소생의 세자를 모해한다는 혐의로 심문을 받다가, 1706년 다시 제주로 유배길을 떠나게 된다.

첫 구절에서는 제주도에 오게 된 내력과 감정을 간단히 말했다. 그가 제주에 유배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 것은 첫째 살려준 것 자체를 임금의 은혜라고 생각했고, 둘째 예전에 왔던 곳이라는 익숙한 감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함련과 경련에서 복헌은 제주도의 원경을 그리면서 이를 신비로운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 복헌이 유배지인 제주도를 신선의 공간으로 생각한 것은 자신의 처지를 스스로 위로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이런 복헌의 심리는 ‘외로운 섬’이라는 시어로 응축되어 나타나는데, 이는 자신이 처한 제주라는 현실공간과 심리적인 느낌을 동시에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헌은 제주도 유배시절 지은 작품에 『四海錄』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제목처럼 복헌에게 제주도는 바다에 갇힌 외롭고 힘든 공간이며, 이는 현실적이면서도 심리적인 모습 그대로였고, 이는 가까운 호남과는 떨어졌고, 멀리 있는 민절지역과는 통한다는 말로 이어진다. 마지막 연에서는 제주의 풍속을 바라보는 복헌의 관점을 표현하였다. 이 시에서의 표현된 복식은 바로 예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연행사의 기록 중에 자신들의 복식에 자부심을 가졌던 언급들이 종종 보이는 바, 이는 조선이 예를 지닌 나라였다는 자부심의 표출이었다. 이를 통해 볼 때, 복헌이 제주 사람들의 옷을 털가죽 옷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를 모르는 미개한 백성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복헌에게 제주는 같은 나라이지만, 다른 풍속을 지닌 이질적인 곳, 이로 인해 야릇한 고독감을 느끼는 공간이었던 셈이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모두 유교윤리로 운영되는 사회를 꿈꾸었다. 복헌 역시 다르지 않았다. 이런 점은 관리로 제주에 왔던 사람들과도 일치한다. 하지만 관리들인 경우 제주사람들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풍속을 바꾸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 분명히 차별점을 갖는다. 하지만 이는 위치에 따른 행동의 차이이며, 기본적인 인식이 다른 것은 아니었다.

복헌의 신분은 유배인의 처지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었기에 주로 자신의 외로움과 불안감만을 집중적으로 토로했다. 다음 시 역시 복헌의 작품이다.

孤城曉色角聲中	외딴 성 새벽빛 뿔 고동 소리에
小雨初收昨夜濛	어젯밤 자욱하던 가랑비 걷혔네
雲逐黑龍歸鉅壑	구름을 쫓는 검은 용 큰 골짜기로 돌아가고
浪翻紅日上層空	물결에 일렁이는 붉은 해는 하늘에 떠 오네
客居已識望弦水	차고 지는 달에 나그네 생활을 알겠고
鄉信唯思西北風	서북쪽 바람에 고향소리 그리워하네
如許年光那易度	많은 세월 어찌하며 쉬 보낼 수 있을런가
邇來顏鬢漸成翁	요즘 얼굴의 수염 점점 늙은이 되었네. ⁴⁾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이다. 그렇지만 유배인의 경우는 유배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그 감정이 보다 복잡해진다. 제주 유배인들의 이런 특수한 감정은 유배라는 형벌과 제주라는 공간을 통해 일상적인 불안으로 변화한다.

수련과 함련은 변화무쌍한 제주의 날씨를 표현하였다. 제주는 태풍이 지나갈 길 목이어서 여름이면 그 날씨가 우중충하고 습기가 많다. 또 남쪽에서 올라오는 구름은 한라산에 걸려 반으로 갈리며 안개가 형성되곤 하는데, 북한이 바로 이 모습을 본 것이다. 이국적인 날씨에 북한은 시름과 외로움을 느꼈고, 경련과 미련에서 이를 절실히 표현하였다. 북한이 기다리는 서북풍은 매섭고도 추운 바람이다. 하지만 북한에게는 고향소식을 전해주는 매개체이기에 오히려 반가운 것이다. 이는 이질적 공간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낯설은 상황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외로움은 결국 ‘늙은이’라는 시어로 마무리 된다. 북한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에 자신을 투영한 것이다. 북한의 작품에는 이 외에도 외로움과 향수에 고독하면서도 궁핍한 감정을 여과없이 표출한 경우가 종종 확인된다.

유배인들이 지나는 향수나 관리들이 느끼는 향수나 표면적인 이유는 같다. 단절된 공간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다. 하지만 유배인들은 관리들에 비해

4) 『北軒集』 권2, 「囚海錄」, 「孤城」, 66면.

보다 행동의 제약이 많았기에 그들의 향수는 외로움을 넘어 상실감으로 이어진다. 다음 인용문 역시 북헌의 작품이다.

有兒有兒兩箇兒	아이야, 아이야, 두 아이야
大述孱迷小述癡	늙은 나약하고 작은 늙은 미련해도
但願無病在母側	그저 병 없이 어미 곁에 있길 바랄 뿐
不願從師讀書詩	스승 좇아 공부하는 것 원치 않노라
吾家兩世仍此厄	우리 집안에서 양 대에 걸쳐 이런 횡액을 당하니
世故他年那復知	뒷날 세상이 어떻게 변할 줄 어찌 알라
嗚呼六歌兮歌逾迫	아! 여섯 번째 노래 더욱 절박하구나
孟博平生不爲惡	맹박같은 삶도 나쁜 것은 아니리 ⁵⁾

북헌이 유배생활을 했던 곳은 지금의 제주시 동문로타리 근처인 산지포구이다. 이곳은 영주십경 중에서도 山浦釣魚로 널리 알려진 장소이다. 북헌이 유배 생활했던 산지포는 아이러하게도 그의 아버지 김진귀가 유배생활을 했던 곳이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양 대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유배생활을 한 것이었다. 북헌의 『山池七歌』에는 이런 그의 마음이 잘 녹아 있다. 인용된 작품은 그 중 여섯 번째 시이다. 이 시에서 북헌은 자식들에게 ‘그저 건강하고 책은 읽지 말라’며 당부 아닌 당부를 하면서 자신의 상실감을 여과없이 표현하였다. 그것도 제주라는 절대고독의 공간에서 양 대에 걸친 유배가 빚어낸 상실감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북헌이 그대로 주저앉은 아니다. 마지막 구절에서 ‘맹박같은 삶’도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다. 맹박은 후한 환제 때 환관들을 거리낌없이 공격했다가 당인을 모은다는 죄목으로 파직된 인물이다. 즉 북헌 자신도 당파싸움으로 유배를 왔지만, 자신의 신념을 굳게 지키며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하면서 유배인인 자신을 위로하였다. 하지만 이 역시 현재의 상실감을 위로하려는 의식적인 분투

5) 『北軒集』 권2, 『囚海錄』, 『山池七歌其六』, 18면.

이며, 감출 수 없는 그의 외로움만이 더욱 부각된다. 위 시에서 나온 복현의 바람과는 달리 그의 아들 덕재 역시 제주로 유배를 오게 된다. 그의 집안 3대가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하는 기구한 운명으로 이어진 것이다.

복현은 이런 상실감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꿈이 사라지고, 오로지 과거로 역주행하는 심사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과거 역시 마냥 좋은 것만 아니다. 어차피 좋았던 과거에 대한 추억은 작금의 괴롭고도 외로운 현실을 회피하는 하나의 자위적인 성격을 지니기 때문이다.

2) 관리, 동경과 교화

조선시대 유배인을 제외하고 외지인으로 제주를 올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었다. 이들 중 글을 남긴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로 두 부류로 파악된다. 한 부류는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또 한 부류는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좌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여러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없는 공간이었기에 이들에게는 늘 신비감과 동경심이 가득하였다. 특히 한라산에 관련된 작품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하다. 다음은 광해군시절 제주관관을 지낸 金綴(1577~1625)의 시 「登絶頂詩」이다.

石磴穿雲步步危

雨餘天氣快晴時

山高積雪經春在

海濶長風盡日吹

鶴駕不迷玄圃路

鳳簫留待赤松期

從今欲學滄霞術

歸去人間莫恨遲

衆山如垤海如杯

脚底長風萬里來

구름을 뚫고 가는 돌길 걸음걸음 위태롭고

비 온 뒤 하늘 날씨 말끔하게 개였구나

산이 높아 쌓였던 눈은 봄 지나도 남아 있고

바다는 넓어 긴 바람 종일토록 불어댄다

학을 타고 현포로 가는 길 잃지는 않았으나

오히려 피리 불며 적송자 기다린다

이제부터라도 신선술을 배우고 싶어서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기 늦음을 한탄하지 아니하네

많은 산 개미 둑 같고 바다는 술잔 같고

머나먼 곳에서 긴 바람이 종아리 밑으로 불어오는데

直待峰頭明月夜

정상에 밤 달 떠오르기를 기다려서

獨看玄鶴舞瑤臺

요대에서 춤추는 현학을 혼자서 보노라⁶⁾

김치는 이조좌랑으로 재직하다가 1609년(광해군1) 3월에 제주도에 도임하였고, 다음해 9월에 교체되었다. 김치는 도임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한라산을 등반하였고, 백록담 정상에서 이 시를 지었다. 시의 도입부에서는 한라산을 오르
는 길과 날씨 등을 서술하였다. 이어지는 ‘현포’·‘적송자’·‘창령술’의 단어는 모두 신선세계를 의미하고 단어들이다. 자신만이 느끼는 신선같은 감정에 호방한
마음이 일었고, 개미독과 같은 많은 산들, 술잔에 담길 것 같은 바다, 종아리 밑
으로 불어오는 만리풍, 이 모두가 호방함을 더해주는 말들이다. 김치가 지은 『한
라산기』에는 남쪽으로 摩羅島·知歸島·巫峽·松岳山·山房山·城山을 북쪽으
로는 白梁島·靑山島·楸子島·斜鼠島·飛揚島·火脫島 등이 보인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중국의 寧波, 유구국, 일본까지 시야에 들어온다고 하였다. 또한 삼
읍(제주현, 대정현, 정의현)의 성곽이 솔밭 같고, 개미들이 구릉에 의지하여 있는
듯하다고 하며, 그날의 감동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⁷⁾ 김치에게도 제주도가 동떨
어진 고독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자신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하면서 고
독의 공간이 호방한 감정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치환된 것이었다. 이는 다른 사
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었고, 여기에 삼신산, 신선 등의 전설을 담겨
있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제주에 온 관리들이 모두 이처럼 유람하는 글을 남긴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은 목민관의 임무가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또 이들은 기본적으로 유교 지식인
이었고, 현실적인 기록을 중시하였다. 문화에 대한 이질적 감정은 유배인과 다를
것이 없지만, 이들은 제주도에 관한 보고나 전달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대표인 인물로 淸陰 金尙憲(1570~1652)을 들 수 있다. 청음은 1601년 제주도에서
발생한 吉雲節의 逆獄을 다스리기 위해 安撫御史로 제주도에 왔다가 『南槎錄』을

6) 『增補耽羅誌』, 金綴, 「登絶頂詩」, 64면.

7) 『增補耽羅誌』, 金綴, 「遊漢拏山記」, 31면.

지었다. 이 책에는 자신이 직접 보고 느낀 제주도의 경치와 풍속이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유배인들과 달리 관리의 신분으로 제주도에 왔기에 관리로서의 책무와 애민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다. 다음 시는 청음의 작품이다.

民知畏吏不知親

自視千金未敢珍

聞說向來多枉死

可憐孤寡幾家人

백성은 관리를 꺼리고 친할 줄 모르는데

천금을 보기를 보배로 보지 않는구나.

듣자니 횡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

불쌍한 고아, 과부 몇 집이런가.⁸⁾

이 시는 청음이 佔畢齋 金宗直의 「毛羅歌」를 보충하며 차운하였다. 이 시의 주석에는 “풍토·물산 같은 것은 선생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바이므로 모두 빼고 거론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이 시에서 청음은 다른 기록자들과는 달리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중점적으로 표현하였다. 청음은 제주도 사람들도 조선의 백성임인데 관리들의 천시를 받고, 거친 바다일로 고래 밥이 되는 것 등을 불쌍히 여긴 것이다. 이에 불행해진 힘없는 아이와 여인들의 실상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 청음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제주도가 임금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청음은 제주백성의 이런 소외감을 정확하게 읽었고, 이는 관리였던 청음에게는 또 다른 층위의 고독한 책임이었다. 이런 청음의 시각은 길운절의 모반으로 시끄러웠던 제주사람들을 위로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제주에 온 관리나 유배인들은 모두 유교지식인이었지만, 그 처지는 분명히 달랐다. 유배인에게 제주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받거나 또는 소멸되는 곳이었다. 하지만 관리들에게 제주도는 유배인들의 그것과는 달랐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제주도의 관리였다. 당시 제주도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들은 유사시 병사통제권까지 가지고 있었다. 제주목사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힘

8) 金尙憲, 『南槎錄』, 「補毛羅歌. 敬次佔畢齋韻. 若風土物産, 先生所會道者, 竝闕而不舉.」十四首.

으로 당시 유교화 되지 않았던 제주사회를 바꾸고 싶어 했다. 이들이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유교교육을 받았던 당시로는 어찌면 당연한 것이었다.

다음 인용문은 瓶窩 李衡祥(1653~1733)이 쓴 『南宦博物』의 일부이다.

州記에는 淫祠를 숭상하는 풍속이 있어 산, 숲, 내, 못, 구렁, 해변, 나무, 돌에까지 모두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 매년 정월 초하루에서 정월 보름까지는 巫覡들이 함께 신깃발을 받들어 굿을 한다. 쟁과 북을 치며 깃발과 창검을 앞세워 마을을 드나들면, 관원이 하 모두 다투어 의복, 재물, 곡식을 내놓고, 이로써 제사를 지낸다. 2월 초 하룻날에는 귀덕, 김녕 등지에서 나무기둥 12개를 세워 신을 맞이하고 제를 지낸다. ...중략... 섬 풍속이 무무하여 성화를 입지 못하여, 동성과 근족이 서로 혼인하고, 혼인할 때에도 서로 절하는 예를 행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여자 쪽에 찬을 보내고, 여자의 몸을 가리지 않는 것, 처가 있는 자가 처를 취하고, 남편이 있는 자가 개부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하기에 지금부터는 금하도록 하겠습니다. 淫祀는 하나하나 헐어버리고 은혜를 머금고 그 덕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⁹⁾

인용문의 첫 단락은 당시 제주도의 무속에 대해 서술하였고, 뒤 단락에서는 병와 자신이 올린 장계의 일부를 기록하였다. 병와는 숙종28(1702)년 제주 목사로 부임했는데, 당시 무속중심의 제주도 풍속을 관권으로 유교화하려고 하였다. 인용문처럼 병와는 동성과 근친간의 혼인 풍습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해녀들이 맨몸으로 잠수하는 것도 금했다고 한다. 특히 그는 제주도에 있던 신당129개를 모두 태워 음사를 단속했고, 개인집에서 신에게 기도하는 물건, 무격의 神衣, 神鐵(신쇠)까지도 불태웠다. 심지어 나무뿌리를 파냈고 절에 있는 불상마저 헐어버렸다. 병와는 일단 미신이라고 판단되면 모두 없앴던 것이다. 그의 부임기간

9) 『南宦博物』, 「尙淫祀」: 州記, 俗尙淫祀, 乃於山藪川池丘陵墳衍木石, 具設神祀. 每歲元日至上元, 巫覡共擎神籙, 作儺戲, 爭鼓旗幟槍劍前導, 出入閭閻, 官員以下, 爭損衣服財穀以祭之. 又於二月朔日, 歸德金寧等處, 立木竿十二, 迎神以祭之. ...중략... 島俗質質不霑聖化, 同姓及近族之相婚, 婚姻時, 交拜之不行, 男婚之送饌, 女體之不掩, 及有妻而娶妻, 有夫而改夫者, 最爲可羞. 自今爲始互相禁止. 若其淫祀, 各各毀撤, 以表其含恩戀德之忱.

에 그려진 『탐라순력도』의 市浦拜恩에도 신당을 불태우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이는 그의 치적에서 중요한 부분이었다. 병와에게 고독의 땅 제주도는 유교문명을 홀로 모르는 미개한 곳이었다. 그렇기에 제주도는 적극적으로 교화시켜야 할 공간이었고, 이곳에 사는 백성은 적극적으로 바뀌어야 할 대상이었다.

병와 이형상의 조치는 당시 제주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반발이 없을 수 없었다. 힘이 모자라서 따르지만, 기존의 것을 한 번에 쓸어버린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대부분의 관리들은 이형상과는 달리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했었다. 점진적 변화의 방식은 유교의식을 가진 제주 인물을 포상하거나 향교와 같은 교육시설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다음 인용문은 정조대에 제주목사를 역임했던 恩波 沈樂洙(1739~1799)의 글이다.

무산년 역변에 적들의 기세가 거세어 조정 안팎이 들썩거렸고, 湖嶺지방에서는 朝士들이 수많은 의병을 일으켰다. 탐라의 의사 오홍태는 궁벽진 바다 저편에 있는 가난한 초야의 한 유생일 뿐이다. 손수 격문을 짓고 제주에서 수 백명을 모아 바다를 건너려 했는데, 난리가 진정되어 그만두었다. 이는 옛날 역사책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것이었다. ...중략... 국법에 정려하여 포상하는 법에는 실적이 없으면 포상할 수 없다. 순국하였을 경우는 충신으로 표창한다. 우리 임금께서 풍속을 세우는 뜻으로 특별히 義士의 한 편 글로 순국의 뜻이 있었다고 하며 정려하고 특별히 대우하셨다. 이는 진실로 천고의 세월동안 시행되지 않은 일을 시행한 것이다. 섬 사람들이 달려와 보면서 모두들 “고을 이름이 旌義인데 지금 예야 딱 들어맞게 되었네”라고 하며 모두 감격하면서 바람대로 되었다고 기뻐하였다. 이로부터 온 섬사람들이 모두 충의를 사모할 줄 알았고, 윗사람과 친하고 어른을 위해 죽을 것을 서로 권면하였다. 아! 아름답도다.¹⁰⁾

10) 『恩坡散稿』 권4. 『義士旌閭記』: 至戊申逆變, 賊勢糾結, 內外交煽, 湖嶺之間, 朝士之起義者多, 而耽羅義士吳君興泰, 窮溟絕域, 草莽之一寒儒耳. 手草檄倡, 島中聚數百人, 將渡海, 亂正而止. 此固從古簡牒之所未聞也. ...중략... 國法旌褒之典, 無實績則不許, 殉國則表以忠臣. 我聖上樹風勵世之意, 特以義士之一片空文, 謂有殉國之志而旌異之, 此固千古廣絕之舉, 而島人奔走聳觀, 皆言. 邑名旌義, 今乃有符, 無不油然而起感, 欣然如得. 從此, 環島之人皆知忠義之可慕, 相勸以親上死長之義矣. 於乎休哉.

인용문의 무신년 역변은 李麟佐의 난을 말한다. 오홍태는 제주도 성산읍 난산리 유생으로 이 때에 격문을 지어 의병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그의 계획은 이인좌의 난이 일찍 수습되면서 실현되지는 못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의병이 일어났다는 사실도 조정에 보고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오홍태가 쓴 격문을 유배왔던 權震應이 보게 된다. 이후 권진웅이 해배가 되어 노론층 인사들은 이 제주도에 의병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인용문에 나온 포상기준처럼 실적이 없기에 오홍태를 정려할 수 없었다. 또 나라에 충성스런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나라를 위해 죽지 못했기에 ‘충신’이라는 호칭도 쓸 수 없었다. 따라서 오홍태에게 ‘의사’라는 호칭으로 정려한 것이었다. 심낙수의 말처럼 이는 정조의 특별한 배려였다. 이밖에 『은파산고』에는 효자, 열부, 충신에 대한 정려의 글¹¹⁾이 보이는데, 모두 유교사상을 고양하는 성격의 글이다.

심낙수가 제주목사로 있던 전후 시기인 1792년~1795년은 제주도 대기근이 있었던 때였다. 이때 심낙수는 정조의 명령으로 제주도에서 ‘탐라빈홍록’을 설치하고 과거합격자를 내었다. 이런 포상 조치로 제주도에서도 유교 지식인층이 형성되었고, 이를 통해 유교문물이 제주도에 본격적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시대 제주에 온 목민관들에게 제주는 유교문명이 이르지 않은 미개한 곳이었다. 이에 목민관들에게 제주도는 유교문명과의 단절에서 오는 책임감이 주로 느껴지는 곳이었던 셈이다. 이들 목민관의 이상처럼 제주가 유교사회가 된 것은 거의 조선말엽의 일로 생각된다.¹²⁾

11) 『恩坡散稿』 권4, 『孝烈忠旌閭記』.

12) 김새미오(2010), 118면.

3) 제주문인, 애증의 교차

제주도는 제주사람들에게도 절대고독의 땅이었다. 조선시대 제주도는 출륙금지령이 있어 자유롭게 본토를 왕래할 수 없었다. 새장에 새를 가두고 다시 발에 족쇄를 채운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교육환경도 여의치 않아, 조선시대 제주도 사람들이 남긴 글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적다.

제주도에 제주 문인들의 첫 감정은 아무래도 따뜻한 애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유가사상으로 나라를 다스리던 조선시대였지만, 제주 사람들은 자신들의 풍속도 나쁘다고만 여기지는 않았다. 다음은 邊景鵬(1754~1824)의 『己亥渡海錄』 서두로 변경봉 자신이 푸다시를 받았던 것을 기록한 것이다.

아버님이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비용도 크지 않았고, 초조한 마음이 급하여 그 말에 따라 시행하였다. 그 날 저녁 一靈이 손으로 叢鈴을 흔들고 입으로 地藏菩薩을 초청하는 말을 했지만, 이루다 기억할 수 없었다. 자정 무렵 일령이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높였고, 귀신을 내쫓을 때에는 明刀(멩도, 신칼)로 사지를 어지럽게 찌러대니 털과 머리카락이 모두 곤두섰다. 꿈으로 세차게 내리치니 소리가 벼락과 같았다. 一靈이 손으로 위에 덮고 있던 옷을 잡고 휘두르며 달리더니 대문을 나가서는 떠나가 버렸다. 나는 어지럽고 피곤하여 잠이 들었다. 해가 중천이 되어 밥 생각이 갑자기 생겼고, 정신은 밝고 상쾌했지만, 양쪽 다리에는 힘이 없었다.¹³⁾

변경봉은 제주도 대정읍 신도리 출신으로, 심낙수 목사가 탐라빈홍록을 설치하여 인재를 뽑았을 때 선발되었던 인물이다. 과거에 합격하여 奉常寺·副奉事·典籍·直講 등을 역임하였고, 후에 司憲府 掌令까지 지냈다. 외직으로 大靜縣監 및 萬頃縣令을 지냈다.

13) 『邊景鵬文集』, 『己亥渡海錄』: 先公姑不信其言, 所費不大, 急於焦悶, 依其言施之. 其夕, 一靈者, 手搖叢鈴, 口招地藏菩薩之說, 不可勝紀. 及當子夜, 瞋目高聲, 比逐鬼魅, 以明刀亂刺肢體, 則毛髮盡豎, 以大豆猛樣瓢板 則聲若霹靂, 一靈手執上覆之衣, 揮揮逐逐, 出門而去. 余昏困入睡, 朝既盈矣. 思食之念, 遽然而生, 精神明快, 兩豎無根矣.

변경봉이 유교적인 교육을 받았던 인물인 만큼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인물은 朱子였다. 그의 저술 중에도 이런 성격이 잘 나타난다. 하지만 위의 인용문은 유교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힘든 무속적인 기록이다. 인용문의 전 내용은 장헌세자의 서자인 恩彦公(1754~1801)과 恩信公(1755~1771)이 제주에 유배왔다가 죽었는데, 변경봉이 이 집에서 공부하다가 이유없이 시름시름 앓았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그의 아버지는 의원을 모신 것이 아니라, 인용문처럼 심방을 데려다가 푸다시를 행하였다. 푸다시는 한국 본토의 푸닥거리에 해당되는 巫儀로서 잡귀에 범접된 병을 치료하는 의례이며¹⁴⁾ 지금도 널리 행해지고 있다. 푸다시에서 잡귀는 死靈의 일종으로 惡靈이 되며, 여기서는 왕세자가 죽을 때 서울에서 따라온 잡귀가 된다. 『변경봉문집』에서는 이밖에도 변경봉이 천연두를 걸렸을 때 夢精했던 기억, 이를 치료하기 위해 면사장까지 지냈던 아버지가 신위를 설치하면서 빌었던 모습도 확인된다. 이들은 분명 제주의 지식층이었고, 유교적 소양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인용문에서 보듯 무속행위를 별 거리낌 없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변경봉의 문집에서는 이 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느렸던 첩에 대한 기록들도 전하는데, 이런 기록들은 당시 본토의 양반사회에서는 거의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19세기 조선에서 이런 기록이 나올 수 있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제주도라는 공간적 이유가 가장 크다. 즉 지리적 한계에 따른 제주도만의 문화적 독특함이 그 이유인 셈이다. 그리고 변경봉의 이런 기록에서 당시 제주도 지식인들이 제주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자체를 긍정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았음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목민관이 제주에 와서 제주도를 바꾸려고 했던 인식과는 그 층위가 분명히 구별된다.

변경봉과 같은 제주도에 대한 긍정적인 시선은 뒤 세대 인물인 梅溪 李漢雨(1823~1881)에게도 확인된다.

14) 현용준(1986), 314면.

天藏晚雪護澄潭

白玉崢嶸碧玉涵

出洞朝雲無影吐

穿林曉月有情含

寒呵鏡面微糊粉

春透屏間半畫藍

何處吹簫仙指冷

騎來雙鹿飲清甘

하늘에 늦은 눈 내려 맑은 못 두르고

눈 덮인 정상 우뚝하고 푸른 옥빛을 담았구나

골짜기 나오는 아침구름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데

숲을 뚫은 새벽달 정답게 떠 온다.

찬 기운 백록담에 붙어오니 살짝 분을 바른 듯

봄 기운 스민 병풍바위 절반은 쪽빛 그림

어디선가 신선은 찬 손으로 통소를 불며

시슴 타고 와 맑은 단 물을 마시나.¹⁵⁾

매계 이한우는 조선 순조대의 제주 문인이었다. 그는 대정에 유배왔던 추사 김정희에게도 배운 적이 있었다. 그 후 매계는 여러 차례 대과에 도전했지만, 성취하지는 못했다. 이후 매계는 제주에 거처하면서 여러 제주인사들을 키워냈고, 지역문사의 구심점 역할을 하였다. 매계는 시에 특징이 있어 여러 작품을 남겼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이 영주십경시이다. 인용 작품은 매계의 영주십경 중에서 鹿潭晚雪에 해당한다.

이 작품에서 매계는 신선들이 살고 있는 한라산의 모습을 백록담에 관련한 설화를 인용하며, 아름답고도 신비스럽게 조명하였다. 그의 영주십경시는 이처럼 기본적으로 제주의 자연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작품이 영주십경시처럼 편안한 것은 아니다. 이한우는 과거에 번번이 실패하였다. 이 시기 매계의 시를 보면 번민과 고독, 한계상황 등에 휩싸여 있었다. 이런 번민의 과정을 겪고 고향으로 돌아온 매계가 창작한 것이 바로 영주십경시인 것이다.

예전부터 제주도는 신선이 사는 땅으로 인식되었다. 본토와 격리되어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가기도 쉽지 않았기에 본토 사람들이 신비롭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공간이었다. 매계는 이런 인식을 받아들이면서 이 시를 창작했다. 이는 자신이

15) 『梅溪先生文集』, 「鹿潭晚雪」.

처한 한계상황을 인정하고, 고독한 공간이었던 제주도를 스스로 긍정적으로 재인식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하지만 지역적 단절로 인한 좌절과 내부적인 만족은 조선시대 제주사람들이 가졌던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 문인들이 이런 한계는 조선말 출륙금지령이 풀리면서 제주도의 공간에 대한 인식이 점차 달라지게 된다. 이후 일제시대 출입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없어지자 제주도 지식인들의 공간의식도 바뀌게 된다. 다음은 浮海 安秉宅(1861~1931)의 시의 일부분이다.

丈夫非壑壁	장부가 앓은뱅이나 절름발이가 아니라면
博觀是素懷	널리 살피는 것이 평소의 생각이지
昔我家南瀛	옛날 나의 집이었던 남쪽 영주는
區壤黑痣小	검은 사마귀마냥 작은 곳
凌霄豈不願	하늘에 오르는 것을 어찌 원하지 않으랴
鬱鬱籠裏鳥	답답하게 새장에 갇힌 새였지
扁舟載全室	작은 배에 온 가족을 싣고
滄海失險深	넓은 바다 깊고 험함을 잊었다네 ¹⁶⁾

부해 안병택은 한말에서 일제강점기를 살았던 제주의 한학자이다. 그는 奇正 鎮-奇字萬의 학맥에서도嫡傳으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浮海라는 말에서 보듯 그는 스승을 찾아 바다를 건너 제주를 떠났던 인물이다. 그가 이렇게 제주를 떠난 것은 그의 아버지인 安達三(1837~1886)의 영향이 크다. 안달삼은 매계 이한우의 문하에서 수학한 후 노사 기정진을 찾아가 배웠다. 안달삼은 최익현이 제주에 유배왔을 때 그와 교류했고, 후에 최익현이 기정진을 만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안달삼은 노사학과와 화서학과를 연결시켜준 결정적인 인물이었다.¹⁷⁾

16) 『浮海文集』, 「瓊玉雪歌於花巖丈因呈短韻」.

17) 『勉庵先生文集』 권6, 「上奇蘆沙」: 吾在濟州見漢學, 過長城謁奇丈席. 於是問者, 竦然欲繼有所聞, 亟以島中時, 移騰安達三所藏門下文字疏章・序・記・理氣說若干篇者出而示之. 竊聽於其尙論之餘緒, 則皆曰見理之精, 論事之切, 眞振古英豪, 命世大儒, 其非深造自得於言意之表, 而不拘牽

인용된 시는 부해가 花巖(?~?)에게 보낸 시의 일부이다. 시에서 보듯 부해에게 제주도는 사마귀처럼 작은 곳, 새를 가두는 새장과 같은 곳이었다. 그러기에 장부의 뜻을 가졌다면 떠나야만 하는 곳이었다. 결국 그는 그의 아호처럼 가족을 모두 데리고 제주를 떠나 전라도에서 살았다.

부해가 스승을 찾아 제주도를 떠나게 된 것은 표면적으로 공부를 위해서이지만, 이는 제주도 지식인이 지녔던 공간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공간이 확대되는 적극적인 삶의 형태였고, 이전의 삶과는 분명 차별성을 갖는다. 부해의 입장에서 제주도는 고향이지만, 자신의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없는 제한적 공간이었다. 제주를 떠났다고 해도 부해가 완전히 저버린 공간도 아니었고, 저버릴 수 있는 공간도 아니었다. 부해가 전라도에 살면서도 자주 제주도를 왕래했고, 제주도 사람들도 그를 찾아 배움을 청했기 때문이다. 부해에게 제주도는 그야말로 애증이 교차하는 복잡한 공간이었다.

일제강점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제주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황금기였다. 자신들을 잃매는 제도적 장치도 사라졌고, 항해기술의 발달 등으로 그 공간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주도에 머물면서 자신들의 공간에 은거하려는 양상도 동시에 확인된다. 이는 시대적인 영향 때문이었다. 다음은 水隱 金熙敦(1863~1946)의 『田隱記』이다.

농사란 무엇인가? 농부들이 심고 가꾸는 것이다. 숨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을 피해 숨는 것이다. 그러니 천하에서 농사일만 힘쓰는 자들은 모두 농사지으며 사는 은자이다. 주인은 어찌하여 홀로 그 명칭을 독차지하였는가? 말한다. 군자가 있고, 야인이 있다. 야인은 어리석고 흐리멍덩하여 그저 먹고 살아가기만을 힘쓰면서 자신만의 취향은 없다. 군자는 분명하게 깨달아 은거하여 자신의 뜻을 구할 줄을 잘 안다. 그것이 군자와 야인이 구별되는 이유이다. 주인의 호가 또한 이름답지 아니한가? 이는 다만 지금처럼 쇠퇴한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옛날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었다.¹⁸⁾

於世俗異同之論，何以如此。

18) 『水隱集』 권1. 『田隱記 爲金時準作』: 田者何? 農之所以稼穡也. 隱者何? 人之所以逕避也. 然則

수는 김희돈은 제주 선비 海隱 金義正(1844~1925)¹⁹⁾의 제자이다. 이 작품은 金時準(?~?)에게 준다는 부제가 붙어있는데, 그의 생평은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이 작품은 『춘추곡량전』의 간결하면서도 명확한 문체로 작성되었다. 인용한 부분은 일제 강점기라는 쇠퇴한 시대에 숨어사는 군자의 행동을 서술한 대목이다. 은거와 출사는 선비들의 가장 기본적인 처신이지만, 시대를 걱정한다는 점은 동일하다. 하지만 당시 이들의 은거는 조선시대의 그것과는 분명한 차별점을 갖는다. 우선 이들은 벼슬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은거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어쩔 수 없는 한계상황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이들에게 제주도는 어지러운 세상을 떠나 멀리 숨어 지내는 공간이 된다. 또한 이들에게 고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희망이 공간이자, 동시에 폐쇄적인 공간으로 남게 된다.

3. 나오며

지금까지 조선시대 절대 고독의 공간이었던 제주도에 대한 여러 시각을 살펴 보았다.

먼저 유배인들에게 제주도는 불안과 상실감을 주는 공간이었다. 유배 자체가 형벌이었기에 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불안감과 사면에 대한 일말의 희망으로 버텼었다. 게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모두 소멸되는 공간이기에, 그 고독감은 상실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관리들에게 제주도는 조선에서 홀로 유교문명을 모르는 공간이었다. 자신들

天下之務本於農者 皆田隱也. 主人何以獨擅其號乎? 曰有君子焉, 有野人焉. 野人則蠢蠢然貿貿焉, 但知食力而無其趣者也; 君子則了了然惺惺焉, 深知隱居而求其志者也, 此其所以爲異也. 主人之號不亦好乎? 此非但有之於今之衰世, 雖古之世, 皆有之.

19) 김희정: 한말~일제강점기의 한학자. 본관이 김해이고, 字는 佑卿, 호는 海隱, 蒲葵이다. 제주도 조천읍 조천리 출신 인물로, 시에는 일각연이 있었다. 매계 이한우의 가르침을 받았고, 면암 최익현이 제주에 유배왔을 때 그를 따라 배웠다.

의 익숙했던 유교문명을 볼 수 없는 이질적 결별감을 주는 장소였다. 하지만 유배인들과 달리 관리들은 공적인 힘이 있었다. 이에 적극적으로 제주도를 변화시키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제주를 유교화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런 이들의 감정은 유교문명에 대한 우월감에서 비롯한 것이었다.

본토 문인들에게 제주도는 떠나고 싶지만 떠날 수 없었고, 떠났어도 다시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애증의 공간이었다. 매계 이한우의 경우 대과에 낙방하고 돌아와서 영주십경시 등을 지었는데, 이는 자신의 외로움과 상실감을 제주자연을 통해 표현하면서 승화시킨 것이었다. 부해 안병택의 경우 출륙금지령이 풀려 본토에 공부를 하러 갔지만, 끊임없이 제주를 그리워하고 또 왕래하였다. 수은 김희돈의 경우 제주에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한계로 인해 다시 제주도에 은거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자신이 선택한 은거가 아니라는 점에서 또 다른 양상의 고독이라고 할 수 있다.

유배인들과 관리들에게 모두 제주도는 고독하고 외로운 공간이었다. 거의 대부분 제주도를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은 감정적 충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유교문명이 미치지 않는 소외된 지역이었다. 그래서 제주문화를 통해 고독감이나 이질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제주문화를 하위단계로 차별하려는 시각에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들의 고독감은 공간의 단절에서 비롯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감정적, 상황적 단절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제주도 문인들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던 자연과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제주도는 자신들을 얹매는 공간이었기에 그 틀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가득하였다. 이는 공간적 단절에서 오는 고독감이었다. 조선말 제제가 풀리고, 기술의 발달로 제주도 문인들이 본토를 오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양상의 고독감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고에서 조선시대 외로웠던 제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아직은 시론에 가깝다고 자평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 보다 밀도 깊은 연구를 통해 세밀한 충위를 꼼꼼히 살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연구를 기대하는 바이다.

■ 참고문헌

1. 원본자료

- 金熙敦(2003) 『水隱集』, 탐라문화연구소.
 金春澤, 『北軒集』, 한국문집총간, 145권.
 邊景鵬, 『一齋先生文集』, 개인소장.
 沈樂洙, 『恩坡散稿』, 서울대학교 규장각.
 安秉宅(2002), 『浮海先生集』, 탐라문화연구소, 2002.
 李漢雨, 『梅溪先生文集』, 필사본, 개인소장.
 李衡祥(1979), 『耽羅巡歷圖, 南宦博物』,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增補耽羅誌』, 담수계, 제주문화원, 2004.

2. 번역자료

- 김희동 역(1992), 『南槎錄』, 영가문화사.
 이상규, 오창명 역(2010), 『南宦博物』.
 김영길 역(1998), 『梅溪先生文集』, 제주문화.
 허남춘, 김병국, 김새미오 역(2010), 『邊景鵬文集』.
 오문복 역(2009), 『浮海文集』, 제주문화원.
 오문복 역(2003), 『水隱集』, 탐라문화연구소.
 김익수 역(2005), 『北軒集』, 제주문화원.
 김익수 역(2004), 『西齋集』, 제주문화원.
 제주문화원 역(2005), 『增補耽羅誌』.

3. 단행본

- 현용준(1986), 『제주도무속연구』, 집문당.

4. 논문

- 부영근(2004), 『조선시대 제주관계 한시의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2006), 『청음 김상헌의 『남사록』고찰』, 『탐라문화』 제29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99~124면.
 김새미오(2006), 『매계 이한우의 시문학교』, 『영주어문』 제11집, 315~339면.
 _____(2010), 『『일재 변경봉 문집』에 나타난 18~19세기의 제주사회 성격에 관한 일고-유교사회로의 변화 양상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제20집, 영주어문학회, 93~118면.
 _____(2012), 『서재 임징하의 유배체험과 형상화』, 『영주어문』 제23집, 영주어문학회, 131~160면.
 손기범(2009), 『제주를 바라보는 19세기 유학자의 관점 -이한우, 김정희, 이원조를 중심으로』, 『영주어문』 제17집, 영주어문학회, 99~119면.

Various understanding about a lonely space, Jeju

Kim saemio*

In this paper, various viewpoints were studied about Jeju which was an absolute lonely space in Joseon dynasty.

First of all, Jeju Island was a place which gave the anxiety and sense of loss to the exiled people. As the banishment was a punishment itself, they withstood with the anxiety that they could be dead anytime and with the slightest hope for the amnesty. Additionally, the sense of loneliness could be identified to be connected with the sense of loss because the place of exile was a place where everything they had was dissipated.

For the officials, Jeju Island was the only place where the Confucian culture was not in Joseon. Additionally it was a place which gave the sense of loneliness through the separation from their familiar spaces where they lived. However, the officials made efforts to actively change and to gradually confucianize Jeju Island because they had official powers. To mainland writers, Jeju Island was a space of love and hatred which they couldn't leave even though they wanted to leave and that they couldn't help missing even though they left.

Maegye, Lee han Jin failed in the civil servant examination and returned to Jeju and wrote Yeongjusibgyeongsi, which was a poem he expressed his loneliness and sense of loss and sublimated through the nature of Jeju. Buhae Ahn Byeong Taek went to the mainland for study after prohibition order of

*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Jeju Hation University.
E-mail : kimsaemio@hanmail.net

leaving island was lifted but he continuously missed Jeju and visited. Sueun Kim Huidon showed the retirement in Jeju Island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the times which was Japanese colonial era. This could be considered as a different aspect of solitude from the viewpoints that the retirement was not chosen by him.

Jeju Island was a place that the exiled people and officials first experienced and was a lonely place itself. Additionally, the culture of Jeju Island was treated with discriminative viewpoints because it was much different from that of mainland land. This is a basically emotional and situational separation, but it could be considered as another solitude which eventually misses their familiar spaces.

On the other hand, writers in Jeju positively looked at the nature and culture which they used to have. However, Jeju was a space which tied them up and therefore, they had full of spaces to get out of the frames. This was a sense of loneliness which came from the spatial sense of alienation. This sense of loneliness tends to be connected even in the situation where the restrictions were lifted at the end of Joseon dynasty and writers could come and go with the technology development.

Key words : Jeju, exile, loneliness, Jeju official, Jeju writers

본 논문은 2013년 7월 10일 투고되어 2013년 7월 31일 심사를 완료하여
2013년 8월 23일 게재를 확정하였음.